

44시간노동제 따른 임금공제기도 강력 저지키로

단사별 규탄대회·대표자단 항의투쟁 등

전노협 상집위 투쟁계획 확정

전노협은 지난달 20일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주44시간노동제에 따른 임금공제기도에 대해

단위사업장별 규탄대회와 노조대표자단의 서울집중 항의투쟁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저지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전노협은 경단협이 근로시간단축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려는 기도와 공휴일 축소정책은 실질 임금을 하락시켜 노동시간 단축을 무효화하고 오히려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이를 90년 하반기 전국적 공동투쟁의 첫출발로서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노협은 대중행동과 상층행동을 함께 조직한다는 방침 아래 9월7일 점심시간에 소속 사업장별로 조합원 규탄대회를 조직해 자본가의 의도와 그 부당성을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9월 중순경에는 전국 대표자들이 임금공제기도와 관련된 관공서나 자본가 단체를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전노협은 이를 위해 이미 '통상임금 보전되는 주44시간노동쟁취하자'는 조합원용 대자보와 '주44시간 노동제 실시에 따른 임금

공제기도·대응지침'을 배포했는데, 이후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임금공제가 행해질 때는 단호한 거부투쟁을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노협 노조원들은 9월7일의 단사별 규탄대회에서 이날 농민들이 여는 '농산물수입저지와 농업발전대책분쇄 및 농산물 제값받기 농민대회'에 즈음해 「농민형제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해 농민투쟁을 지지하는 연대의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